

# 한국갤럽 <sup>데일리</sup> 오피니언

GALLUP KOREA POLITICAL INDEX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 - 문화  
매주 새로운 Opinion Index를 제공합니다.

제80호 • 2013년 8월 3주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1988~2013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이유 •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정당 지지도 • 호도법/세계개편안에 대한 의견

최근 20주 주간(Weekly) 지표 추이 - 최근 6주 일일(Daily) 지표 추이 - 지역/연령/성/지지정당/직업/생활수준별 지표 - 응답자 특성표

2013년 8월 12~14일 • 휴대전화 RDD 조사 • 유효표본 전국 성인 1,006명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400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를 기본 표본 프레임으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집전화 RDD 조사를 병행하며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 한국갤럽 유무선 RDD 혼합조사설계, 선거여론조사 관련 연구논문

한국갤럽은 2010년 이후 유선전화(일반 집전화)와 무선전화(휴대전화) RDD 조사 과정과 결과를 수차례 비교 연구해 왔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에 유무선 RDD 혼합조사설계를 적용해 2012년 2월 응용통계연구 25권 1호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와 전화조사 방법론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논문을 참고해주시고.

(아래 링크는 모바일기기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PC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 [유무선 RDD를 결합한 혼합조사설계: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조사 사례 연구](#)

→ [선거시기 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언론중재 2012 여름호 특집논문\)](#)

39<sup>th</sup>

Top of Mind Brand since 1974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설립자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974년 문을 연 저희 연구소가 우리 국민의 기쁨이 이룸을 아는 조사회사로 성장한 것은 저희 조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국민들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012년부터 자체 기획, 운영하는 정치 지표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주 제공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정치뿐 아니라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한민국 대표 오피니언 인덱스로 한 단계 더 흥미로운 자원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 하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갤럽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정하고 신뢰 받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대표하여 박 무 익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 71%가 이룸을 알고 있는 조사회사입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의 특징

2012년 1월부터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휴대전화 RDD 조사를 연중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공개합니다.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필요하신 분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 조사 방법 / 지표 산출 방법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이상, 매주 1,2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금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권역,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 표본오차 / 해석 시 주의사항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서 일일 지표의 표본크기는 약 900여 명, 주간 지표의 표본크기는 약 1,200여 명입니다.

유효 표본크기 9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pm 3.3\%$ 포인트, 1,200명일 때  $\pm 2.8\%$ 포인트입니다.

표본오차 이외에도 불완전한 표본추출틀, 응답 거절, 질문에 대한 혼동 등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표본오차는 이런 요인을 배제하고 비교적 완전한 표본추출틀에서 확률추출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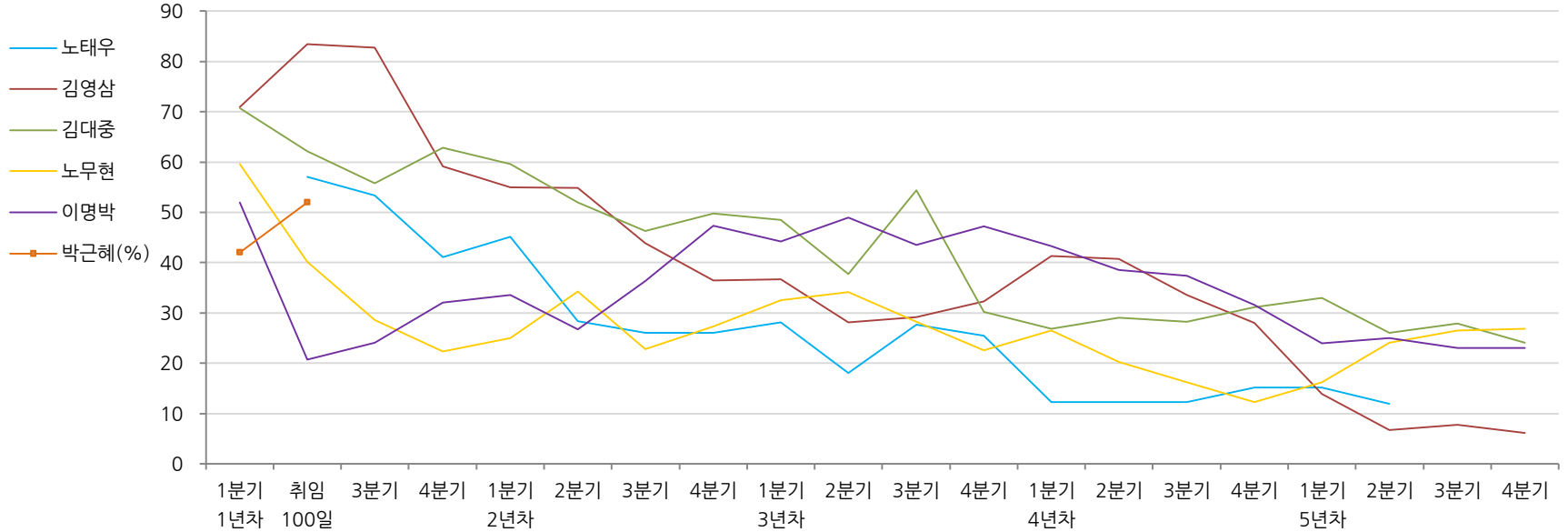
※ 2012년에는 매주 1,5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조사결과를 공개했으나, 2013년에는 매주 1,200명 이상 조사하고 그 주 금요일 조사결과를 공개합니다.

#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1988~2013

1988~2011년은 분기 내 여러 조사 결과의 중위수 기준, 2012년 이후는 데일리정치지표 조사 분기별 통합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 '잘못하고 있다'—부정 평가 비율

“귀하는 요즘 000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 ◎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 ◎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역대 대통령	재임연차 분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분기	100일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대 노태우 (1988~1993)	긍정	-	57	53	41	45	28	26	-	28	18	28	25	12	-	-	15	-	12	-	-
	부정	-	16	25	27	25	41	45	-	40	62	55	54	40	-	-	41	-	56	-	-
14대 김영삼 (1993~1998)	긍정	71	83	83	59	55	55	44	36	37	28	29	32	41	41	34	28	14	7	8	6
	부정	7	4	6	18	24	21	25	33	34	41	45	39	33	37	40	47	65	74	78	74
15대 김대중 (1998~2003)	긍정	71	62	56	63	60	52	46	50	49	38	54	30	27	29	28	31	33	26	28	24
	부정	7	11	17	14	16	22	29	24	20	26	18	51	55	52	49	49	41	53	52	56
16대 노무현 (2003~2008)	긍정	60	40	29	22	25	34	23	27	33	34	28	23	27	20	16	12	16	24	27	27
	부정	19	41	53	62	57	46	60	57	55	53	61	67	63	70	74	79	78	66	64	62
17대 이명박 (2008~2013)	긍정	52	21	24	32	34	27	36	47	44	49	44	47	43	39	37	32	24	25	23	23
	부정	29	69	65	55	55	55	55	45	45	41	43	41	49	54	55	60	62	58	59	61
18대 박근혜 (2013~2018)	긍정	42	53																		
	부정	2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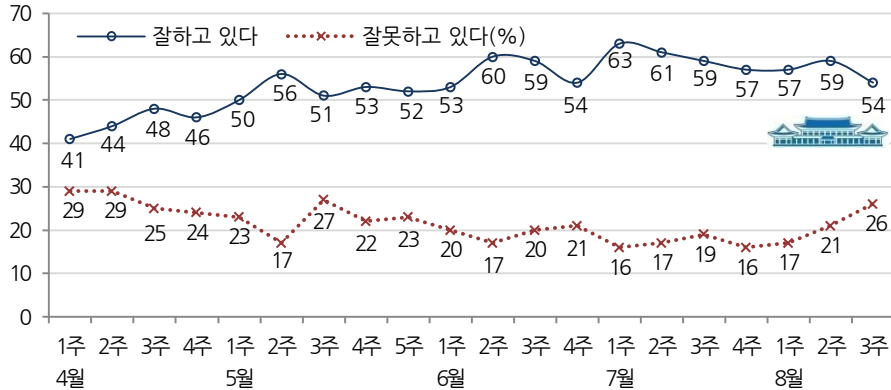
\*취임 1년차 2분기는 모두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5월 말~6월 초) 조사 결과 기준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 최근 20주 주간(Weekly)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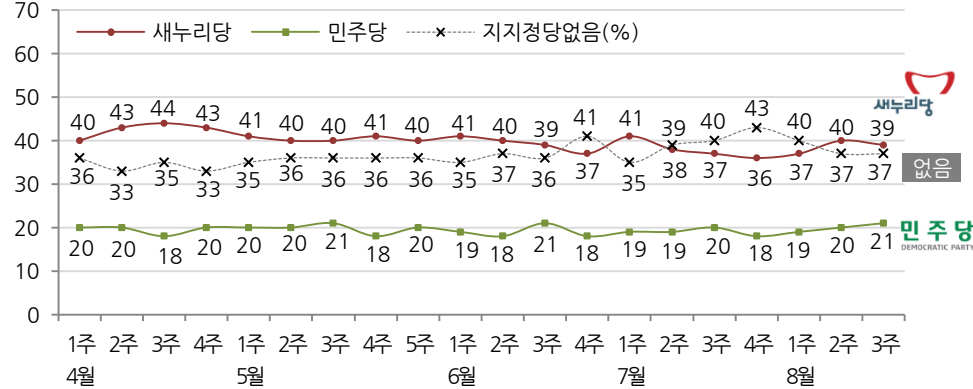
매주 월~목 통합 데이터 • 휴대전화 RDD 조사 • 매주 유효표본 약 1,200여 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최근 20주 평균 응답률 18%

- ◎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 ◎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정당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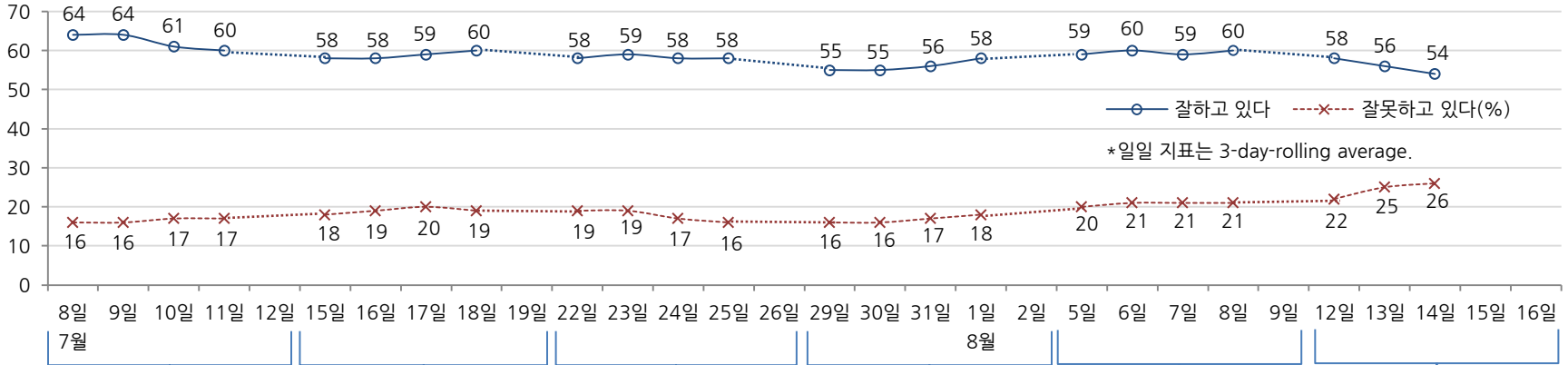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주요 정치 이슈 - 최근 6주 일일(Daily) 지표 추이

일일 지표는 3-day rolling average • 휴대전화 RDD 조사 • 일일 지표 기준 유효표본 약 900여 명 • 표본오차 ±3.3%포인트(95% 신뢰수준) • 최근 6주 평균 응답률 18%

◎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7월 2주	3주	4주	8월 1주	2주	3주
7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13   여야, '귀태' 파문 일단락	21   일본 참의원선거,	28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	3   김한길, 차에 영수회담 제안	12   차, 세계개편안 원점 재검토
7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국회 정상화 합의	자민-공명 과반 의석 확보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합의	5   청와대 참모진 개편	12   '내일' 최장집, 이사장직 사임
8   차, 국정원 개혁 촉구	15   여야, 대화록 예비 열람	21   진보정의당→정의당,	29   정부, 북에 마지막 회담 제의	김기춘 비서실장 자격 논란	13   차, '김좌진함' 진수식 참석
야권, 자체 개혁 한계 비판	16   전두환 재산 압류	진보신당→노동당 개명	29   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 난항	5   남재준 국정원장, 국조 출석	13   정부, 세계개편 수정안 발표
10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논란	17   민주 김현-진선미, 국정원	22   차, 취임 후 첫 부산 방문	30   전략권 전환 재연기 논의	5   황우여, 3자회담 제안	민주, 강력 비판
10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국조특위 위원 사퇴	22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결론	30   부정청탁 금지 법안 통과	6   차, 여야에 5자회담 제안	13   고법, 대통령기록물 열람
10   국정원, NLL 포기 해석 성명	17   정부, 미국에 전략권 전환	23   문재인 NLL 논란 종식	30   민주, 대화록 실종 특검 발의	민주-거부	영장 발부
11   국방부, 국정원 동조 브리핑	재연기 제안 사실 확인	성명에 여권 강력 비판	31   4대강 사업 자료 추가 공개	6   국정원 국조 기한 연장 합의	14   국정원 국조 첫 청문회
11   문재인, 김장수-윤병세-	17   새누리, 민주 막말 논란 공세	23   여당, 네이버규제법 시동	31   민주,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7   정부, 경협보험금 지급 발표	원세훈-김용판, 증인 불출석
김관진에 NLL 입장 촉구	17   대화록 원본 존재 여부	24   김한길, NLL 논란 국정원	관련 장외투쟁 선언	북, 14일 7차 회담 제안	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12   '귀태' 파문-국회 일정 취소	미확인 파문 확산	24   김한길, NLL 논란 국정원	1   민주, 서울광장 의원 총회	7   국정원 국조 증인 채택 합의	14   개성공단 7차 회담 타결
* 국정원-NLL 관련 집회,	* 개성공단 회담 합의 불발	25   여당, 대화록 실종 관련자	1   새누리, 부동산 정책간담회	8   정부, 세계개편안 발표-논란	15   광복절
시국 선언 이어져	* 4대강 조사위 출범 난항	전문 검찰 고발	1   일본 정부, 독도 관련	8   14일 7차 남북회담 확정	* 국정원 구탄 집회,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 국정원-NLL 관련 집회,	26   여야, NLL 정쟁 중단 선언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정원-NLL 관련 집회	민주 장외투쟁 계속
남북 실무회담 개최	시국 선언 이어져	* 전두환 일가 재산 압류	* 박 대통령 휴가		
*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 5,6차 남북 실무회담 결렬	* 국정원-NLL 관련 집회		
		* 국정원-NLL 관련 집회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주간(Weekly) 지표 / 일일(Daily) 지표 / 상세 결과

◎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조사 시기		표본수 (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름/ 응답거절
주간	04월 1주(01~05)	1,224	41%	29%	8%	22%
주간	04월 2주(08~11)	1,220	44%	29%	8%	18%
주간	04월 3주(15~18)	1,205	48%	25%	7%	20%
주간	04월 4주(22~25)	1,214	46%	24%	10%	21%
주간	05월 1주(30~02)	1,005	50%	23%	7%	21%
주간	05월 2주(06~09)	1,210	56%	17%	8%	19%
주간	05월 3주(13~15)	1,003	51%	27%	8%	14%
주간	05월 4주(20~23)	1,217	53%	22%	8%	17%
주간	05월 5주(27~30)	1,216	52%	23%	10%	15%
주간	06월 1주(03~05)	1,007	53%	20%	11%	16%
주간	06월 2주(10~13)	1,211	60%	17%	10%	14%
주간	06월 3주(17~20)	1,234	59%	20%	6%	15%
주간	06월 4주(24~27)	1,218	54%	21%	10%	15%
주간	07월 1주(01~04)	1,212	63%	16%	8%	13%
주간	07월 2주(08~11)	1,212	61%	17%	8%	15%
주간	07월 3주(15~18)	1,215	59%	19%	9%	13%
주간	07월 4주(22~25)	1,228	57%	16%	10%	17%
주간	08월 1주(29~01)	1,230	57%	17%	10%	15%
주간	08월 2주(05~08)	1,207	59%	21%	8%	11%
주간	08월 3주(12~14)	1,006	54%	26%	8%	13%
일일	08/05(월)	918	59%	20%	8%	13%
일일	08/06(화)	908	60%	21%	7%	12%
일일	08/07(수)	906	59%	21%	8%	11%
일일	08/08(목)	906	60%	21%	8%	11%
일일	08/09(금)					
일일	08/12(월)	939	58%	22%	9%	11%
일일	08/13(화)	972	56%	25%	8%	11%
일일	08/14(수)	1,006	54%	26%	8%	13%
일일	08/15(목)	광복절				
일일	08/16(금)					

\*일일 지표는 3-day-rolling average,

2013년 8월 3주		표본수 (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006	54%	26%	8%	13%	
지역별	서울	208	53%	29%	6%	12%	
	인천/경기	288	51%	27%	8%	14%	
	강원	31	-	-	-	-	
	대전/세종/충청	102	52%	21%	12%	16%	
	광주/전라	103	41%	39%	10%	10%	
	대구/경북	104	62%	22%	4%	12%	
	부산/울산/경남	159	61%	19%	9%	11%	
	제주	11	-	-	-	-	
	연령별	19-29세	182	35%	34%	8%	24%
		30-39세	202	31%	46%	10%	13%
40-49세		220	50%	28%	11%	11%	
50-59세		192	67%	16%	7%	10%	
60세 이상		210	83%	7%	3%	7%	
성별	남성	498	49%	30%	9%	11%	
	여성	508	58%	22%	7%	14%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395	83%	6%	4%	7%	
	민주당	210	27%	49%	12%	12%	
	지지정당없음	375	40%	31%	10%	19%	
직업별	농/임/어업	45	-	-	-	-	
	자영업	146	50%	28%	8%	13%	
	블루칼라	140	58%	21%	13%	8%	
	화이트칼라	267	38%	40%	10%	11%	
	가정주부	228	68%	11%	6%	14%	
	학생	90	37%	38%	4%	21%	
	무직/기타	89	65%	19%	5%	11%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102	58%	32%	6%	5%
중		373	54%	24%	9%	13%	
중하		321	46%	29%	9%	16%	
하		194	61%	22%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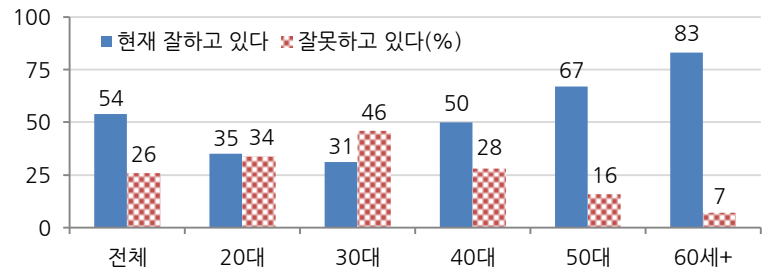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이유 - 2013년 8월 3주

- ◎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 ◎ 어떤 점에서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539명)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260명)	
대북 정책	19%	세계개편안/증세 문제	18%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	13%	국정원 문제(대선개입, 대화록 공개)	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7%	국민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	8%
서민을 위한 노력/서민 정책 추진	6%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	8%
복지 정책 확대(보육, 노인, 청년, 교육 등)	6%	경제 정책	7%
전반적으로 잘한다	5%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6%
전두환 재산 압류	4%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	6%
안정적인 국정운영	4%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5%
시끄럽지 않다/잡음 없다/신중하다	4%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	5%
추진력이 있다	4%	독선/독단적/자기 중심	4%
외교/국제 관계	3%	주관/소신 부족	2%
공약 실천/약속을 지킨다	3%	여야간 갈등/정치개혁 부족	2%
국민 공감/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2%	대북 정책	2%
신뢰/믿음이 간다	2%	4대강 해결 미흡	1%
부정부패 척결	2%	지역간 균형발전 미흡	1%
경제 정책/경제 현안 처리	1%	외교 문제	1%
세제 개편	1%	기타	2%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위기극복	1%	모름/응답거절	13%
기타	1%		
모름/응답거절	11%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연령별 - 8월 3주(취임 25주차)



◎ 귀하께서는 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취임 12주차 한국갤럽 데일리 2013년 5월 3주(1,003명)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취임 16주차 한국갤럽 데일리 2013년 6월 2주(1,211명)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취임 20주차 한국갤럽 데일리 2013년 7월 2주(1,212명)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취임 25주차 한국갤럽 데일리 2013년 8월 3주(1,006명)	
경기회복/경제활성화	18%	남북 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	16%	일자리창출/실업문제	17%	경기회복/경제활성화	13%
남북 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	16%	일자리창출/실업문제	16%	경기회복/경제활성화	14%	일자리창출/실업문제	11%
일자리창출/실업문제	14%	경기회복/경제활성화	14%	남북 관계 개선/북핵 해결	13%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	9%
물가 안정	8%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	9%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	9%	남북 관계 개선/북핵 해결	7%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	7%	물가 안정	7%	물가 안정	7%	물가 안정	7%
복지 정책 확대	5%	복지 정책 확대	6%	빈부격차/사회양극화 해소	6%	정치 안정, 개혁	5%
정치 안정, 개혁	5%	빈부격차/사회양극화 해소	4%	부동산 안정	4%	복지 정책 확대	5%
부정부패 척결	3%	부정부패 척결	4%	복지 정책 확대	4%	서민 세금 감면(감세)	4%
빈부격차/사회양극화 해소	3%	부동산 안정	3%	국정원 문제(대선개입, 대화록 공개)	3%	빈부격차/사회양극화 해소	4%
부동산 안정	2%	공교육 정상화/교육문제	2%	부정부패 척결	3%	부동산 안정	4%
공교육 정상화/교육문제	2%	정치 안정, 개혁	2%	정치 안정, 개혁	2%	국정원 문제(대선개입, 대화록 공개)	3%
경제 민주화	1%	국민과의 소통 확대	1%	사회안정/질서확립	1%	부정부패 척결	2%
사회안정/질서확립	1%	사회안정/질서확립	1%	공교육 정상화/교육문제	1%	부자 세금 확대(증세)	2%
국민과의 소통 확대	1%	경제 민주화	1%	국민과의 소통 확대	1%	공교육 정상화/교육문제	2%
농어촌 문제	1%	서민 세금 감면(감세)	1%	서민 세금 감면(감세)	1%	경제 민주화	2%
지역간 차이, 지역감정 해소	1%	대미 관계 개선 등 외교	1%	농어촌 문제	1%	국민과의 소통 확대	1%
기타	4%	농어촌 문제	1%	경제 민주화	1%	대학 등록금 인하	1%
모름/응답거절	6%	기타	5%	기타	3%	사회안정/질서확립	1%
		모름/응답거절	5%	모름/응답거절	8%	외교 관계	1%
						지역간 차이, 지역감정 해소	1%
						기타	4%
						모름/응답거절	12%



# 정당 지지도 - 최근 20주 주간(Weekly) 지표 / 최근 2주 일일(Daily) 지표 / 최근 1주 상세 결과

◎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조사 시기		표본수 (명)	정당 지지도					없음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 진보당	정의당	기타 정당	
주간	04월 1주(01~04)	1,224	40%	20%	2%	1%	0%	36%
주간	04월 2주(08~11)	1,220	43%	20%	2%	1%	1%	33%
주간	04월 3주(15~18)	1,205	44%	18%	2%	1%	0%	35%
주간	04월 4주(22~25)	1,214	43%	20%	2%	1%	1%	33%
주간	05월 1주(30~02)	1,005	41%	20%	2%	1%	1%	35%
주간	05월 2주(06~09)	1,210	40%	20%	1%	1%	1%	36%
주간	05월 3주(13~15)	1,003	40%	21%	2%	1%	0%	36%
주간	05월 4주(20~23)	1,217	41%	18%	3%	1%	1%	36%
주간	05월 5주(27~30)	1,216	40%	20%	2%	1%	1%	36%
주간	06월 1주(03~05)	1,007	41%	19%	3%	1%	0%	35%
주간	06월 2주(10~13)	1,211	40%	18%	2%	1%	0%	37%
주간	06월 3주(17~20)	1,234	39%	21%	2%	1%	1%	36%
주간	06월 4주(24~27)	1,218	37%	18%	2%	1%	1%	41%
주간	07월 1주(01~04)	1,212	41%	19%	2%	2%	1%	35%
주간	07월 2주(08~11)	1,212	38%	19%	2%	1%	1%	39%
주간	07월 3주(15~18)	1,215	37%	20%	2%	1%	1%	40%
주간	07월 4주(22~25)	1,228	36%	18%	2%	1%	1%	43%
주간	08월 1주(29~01)	1,230	37%	19%	2%	1%	1%	40%
주간	08월 2주(05~08)	1,207	40%	20%	1%	1%	0%	37%
주간	08월 3주(12~14)	1,006	39%	21%	2%	0%	0%	37%
일일	08/05(월)	918	39%	20%	3%	1%	1%	36%
일일	08/06(화)	908	38%	21%	2%	1%	0%	37%
일일	08/07(수)	906	39%	20%	2%	1%	1%	37%
일일	08/08(목)	906	42%	21%	1%	1%	0%	35%
일일	08/09(금)							
일일	08/12(월)	939	42%	20%	2%	1%	0%	35%
일일	08/13(화)	972	40%	21%	2%	1%	0%	36%
일일	08/14(수)	1,006	39%	21%	2%	0%	0%	37%
일일	08/15(목)	광복절						
일일	08/16(금)							

\* 일일 지표는 3-day-rolling average

2013년 8월 3주		표본수 (명)	정당 지지도					없음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 진보당	정의당	기타 정당	
전체		1,006	39%	21%	2%	0%	0%	37%
지역별	서울	208	38%	20%	1%	1%	0%	40%
	인천/경기	288	36%	24%	4%	0%	0%	35%
	강원	31	-	-	-	-	-	-
	대전/세종/충청	102	40%	15%	0%	1%	0%	44%
	광주/전라	103	9%	42%	1%	0%	1%	47%
	대구/경북	104	56%	10%	3%	0%	0%	31%
	부산/울산/경남	159	54%	13%	0%	0%	0%	31%
	제주	11	-	-	-	-	-	-
	연령별	19-29세	182	24%	24%	1%	1%	0%
30-39세		202	20%	30%	5%	1%	0%	44%
40-49세		220	35%	23%	2%	1%	1%	38%
50-59세		192	50%	20%	0%	0%	0%	29%
60세 이상		210	65%	8%	1%	0%	0%	26%
성별	남성	498	40%	22%	2%	1%	0%	35%
	여성	508	39%	20%	2%	0%	0%	39%
직업별	농/임/어업	45	-	-	-	-	-	-
	자영업	146	42%	27%	3%	1%	0%	27%
	블루칼라	140	38%	19%	1%	1%	0%	41%
	화이트칼라	267	27%	28%	4%	0%	1%	41%
	가정주부	228	49%	14%	2%	0%	0%	36%
	학생	90	29%	21%	0%	0%	0%	50%
	무직/기타	89	48%	16%	1%	1%	0%	34%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102	38%	21%	1%	1%	1%
중	373	38%	24%	1%	0%	0%	36%	
중하	321	35%	22%	3%	1%	0%	39%	
하	194	48%	14%	2%	0%	0%	36%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효도법에 대한 의견 - 2013년 8월 3주

- ◎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효도법이 발의됐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8월 12~14일		표본수 (명)	자녀가 불효, 부양 의무 소홀할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도법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6	86%	8%	6%	
지역별	서울	208	84%	7%	8%	
	인천/경기	288	87%	8%	5%	
	강원	31	-	-	-	
	대전/세종/충청	102	88%	8%	3%	
	광주/전라	103	88%	9%	3%	
	대구/경북	104	86%	9%	5%	
	부산/울산/경남	159	89%	6%	5%	
	제주	11	-	-	-	
	연령별	19-29세	182	85%	12%	3%
30-39세		202	91%	4%	5%	
40-49세		220	86%	9%	5%	
50-59세		192	89%	6%	5%	
60세 이상		210	80%	8%	11%	
성별	남성	498	86%	9%	5%	
	여성	508	86%	7%	7%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395	86%	7%	7%	
	민주당	210	88%	7%	5%	
	지지정당없음	375	85%	10%	6%	
직업별	농/임/어업	45	-	-	-	
	자영업	146	88%	5%	7%	
	블루칼라	140	92%	6%	2%	
	화이트칼라	267	88%	9%	4%	
	가정주부	228	85%	7%	9%	
	학생	90	80%	16%	4%	
	무직/기타	89	84%	7%	9%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102	84%	10%	6%
		중	373	86%	9%	6%
중하		321	90%	6%	4%	
하		194	83%	9%	8%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2013년 8월 12~14일		표본수 (명)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1,006	15%	67%	18%	
지역별	서울	208	14%	68%	17%	
	인천/경기	288	15%	68%	16%	
	강원	31	-	-	-	
	대전/세종/충청	102	9%	72%	19%	
	광주/전라	103	15%	60%	25%	
	대구/경북	104	18%	70%	13%	
	부산/울산/경남	159	16%	64%	20%	
	제주	11	-	-	-	
	연령별	19-29세	182	19%	65%	16%
30-39세		202	13%	70%	17%	
40-49세		220	18%	67%	15%	
50-59세		192	10%	72%	18%	
60세 이상		210	15%	62%	24%	
성별	남성	498	12%	72%	16%	
	여성	508	18%	63%	20%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395	13%	71%	16%	
	민주당	210	13%	69%	18%	
	지지정당없음	375	17%	62%	20%	
직업별	농/임/어업	45	-	-	-	
	자영업	146	8%	73%	18%	
	블루칼라	140	11%	78%	12%	
	화이트칼라	267	17%	65%	18%	
	가정주부	228	18%	63%	19%	
	학생	90	23%	68%	8%	
	무직/기타	89	15%	57%	27%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102	23%	61%	16%
		중	373	15%	67%	17%
중하		321	12%	71%	17%	
하		194	15%	67%	18%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정부 발표 세계개편 원안에 대한 의견 - 2013년 8월 12~13일

2013년 8월 12~13일(2일간) • 휴대전화 RDD 조사 • 유효표본 전국 성인 671명 • 표본오차 ±3.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4,327명 중 671명 응답 완료)

- ◎ 지난 8일 정부가 세계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귀하께서는 정부의 세계개편안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 귀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귀하 본인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8월 12~13일 (세계개편 수정안 발표 전)		표본수 (명)	8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개편안(원안)에 대해 들은 적 있는가?	
			들은 적 있다	들은 적 없다
전체		671	62%	38%
지역별	서울	139	68%	32%
	인천/경기	192	68%	32%
	강원	21	-	-
	대전/세종/충청	68	53%	47%
	광주/전라	69	59%	41%
	대구/경북	69	61%	39%
	부산/울산/경남	106	52%	48%
	제주	7	-	-
연령별	19-29세	122	44%	56%
	30-39세	136	63%	37%
	40-49세	147	72%	28%
	50-59세	128	74%	26%
	60세 이상	138	56%	44%
성별	남성	332	70%	30%
	여성	339	55%	45%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259	64%	36%
	민주당	147	68%	32%
	지지정당없음	246	55%	45%
직업별	농/임/어업	29	-	-
	자영업	101	77%	23%
	블루칼라	86	60%	40%
	화이트칼라	181	74%	26%
	가정주부	153	52%	48%
	학생	58	33%	67%
	무직/기타	64	61%	39%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80	67%
중	235	62%	38%	
중하	217	66%	34%	
하	127	57%	43%	

2013년 8월 12~13일 (세계개편 수정안 발표 전)		표본수 (명)	세계개편안(원안),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느 쪽도 아니다	모름/ 응답거절
세계개편안 원안 인지도 전체		417	7%	52%	32%	9%
지역별	서울	94	6%	53%	34%	7%
	인천/경기	130	8%	52%	32%	8%
	강원	13	-	-	-	-
	대전/세종/충청	36	-	-	-	-
	광주/전라	40	-	-	-	-
	대구/경북	42	-	-	-	-
	부산/울산/경남	56	8%	52%	32%	8%
	제주	6	-	-	-	-
연령별	19-29세	53	10%	55%	30%	4%
	30-39세	85	1%	78%	14%	6%
	40-49세	106	10%	54%	27%	9%
	50-59세	95	4%	51%	38%	7%
	60세 이상	77	9%	20%	51%	20%
성별	남성	232	6%	57%	28%	9%
	여성	185	7%	46%	37%	9%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166	6%	37%	44%	13%
	민주당	101	7%	67%	23%	3%
	지지정당없음	135	8%	56%	26%	10%
직업별	농/임/어업	16	-	-	-	-
	자영업	78	5%	56%	33%	6%
	블루칼라	51	12%	49%	32%	6%
	화이트칼라	134	4%	68%	22%	7%
	가정주부	80	7%	42%	37%	14%
	학생	19	-	-	-	-
	무직/기타	39	-	-	-	-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53	10%	56%	28%
중	146	5%	54%	33%	8%	
중하	144	7%	57%	29%	7%	
하	73	7%	36%	40%	17%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13일 오후 수정안이 발표돼 8일 정부 발표 원안에 대한 의견은 12~13일 이틀만 조사함.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13일 오후 수정안이 발표돼 8일 정부 발표 원안에 대한 의견은 12~13일 이틀만 조사함.

# 정부 발표 세계개편 원안에 대한 의견 - 2013년 8월 12~13일

2013년 8월 12~13일(2일간) • 휴대전화 RDD 조사 • 유효표본 전국 성인 671명 • 표본오차 ±3.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4,327명 중 671명 응답 완료)

◎ 귀하께서는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8월 12~13일 (세계개편 수정안 발표 이전)		표본수 (명)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 vs.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			
			복지 확대	그럴 필요 없다	모름/응답거절	
전체		671	50%	39%	11%	
지역별	서울	139	53%	33%	14%	
	인천/경기	192	50%	42%	9%	
	강원	21	-	-	-	
	대전/세종/충청	68	46%	37%	18%	
	광주/전라	69	54%	34%	12%	
	대구/경북	69	48%	45%	6%	
	부산/울산/경남	106	51%	40%	9%	
	제주	7	-	-	-	
연령별	19-29세	122	50%	42%	8%	
	30-39세	136	47%	45%	8%	
	40-49세	147	47%	39%	14%	
	50-59세	128	53%	39%	8%	
	60세 이상	138	56%	28%	16%	
성별	남성	332	60%	31%	9%	
	여성	339	41%	46%	13%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259	54%	35%	11%	
	민주당	147	50%	40%	10%	
	지지정당없음	246	47%	41%	12%	
직업별	농/임/어업	29	-	-	-	
	자영업	101	56%	33%	11%	
	블루칼라	86	56%	35%	9%	
	화이트칼라	181	53%	39%	8%	
	가정주부	153	34%	49%	17%	
	학생	58	50%	39%	11%	
	무직/기타	64	62%	29%	9%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80	54%	43%	2%
		중	235	51%	37%	12%
중하		217	51%	39%	11%	
하		127	49%	39%	12%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주간 응답자 특성표

주요 분석 단위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기준)와 지역/성/지지정당/직업/생활수준과 연령 분포 구성입니다.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8개 권역/성/연령별 가중 처리 결과.

- ◎ 귀하는 어느 시도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지역을 알지 못합니다.)
- ◎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 ◎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8월 3주		표본수 (명)	표본오차	전체 구성비	
<b>전체</b>		<b>1,006</b>	<b>±3.1%P</b>	<b>100%</b>	
<b>지역별</b>	서울	208	±6.8%P	21%	
	인천/경기	288	±5.8%P	29%	
	강원	31	±17.6%P	3%	
	대전/세종/충청	102	±9.7%P	10%	
	광주/전라	103	±9.7%P	10%	
	대구/경북	104	±9.6%P	10%	
	부산/울산/경남	159	±7.8%P	16%	
	제주	11	±29.5%P	1%	
	<b>연령별</b>	19-29세	182	±7.3%P	18%
30-39세		202	±6.9%P	20%	
40-49세		220	±6.6%P	22%	
50-59세		192	±7.1%P	19%	
60세 이상		210	±6.8%P	21%	
<b>성별</b>	남성	498	±4.4%P	50%	
	여성	508	±4.3%P	50%	
<b>주요 지지 정당별</b>	새누리당	395	±4.9%P	39%	
	민주당	210	±6.8%P	21%	
	지지정당없음	375	±5.1%P	37%	
<b>직업별</b>	농/임/어업	45	±14.6%P	5%	
	자영업	146	±8.1%P	15%	
	블루칼라	140	±8.3%P	14%	
	화이트칼라	267	±6.0%P	27%	
	가정주부	228	±6.5%P	23%	
	학생	90	±10.3%P	9%	
	무직/기타	89	±10.4%P	9%	
	<b>주관적 생활수준</b>	상/중상	102	±9.7%P	10%
		중	373	±5.1%P	37%
중하		321	±5.5%P	32%	
하		194	±7.0%P	19%	
응답거절		17	±23.8%P	2%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기준

2013년 8월 3주		표본수 (명)	연령 분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b>전체</b>		<b>1,006</b>	<b>18%</b>	<b>20%</b>	<b>22%</b>	<b>19%</b>	<b>21%</b>	
<b>지역별</b>	서울	208	20%	22%	21%	19%	19%	
	인천/경기	288	19%	22%	24%	18%	17%	
	강원	31	-	-	-	-	-	
	대전/세종/충청	102	18%	20%	21%	19%	23%	
	광주/전라	103	17%	18%	21%	18%	26%	
	대구/경북	104	17%	18%	21%	20%	24%	
	부산/울산/경남	159	18%	19%	22%	20%	21%	
	제주	11	-	-	-	-	-	
	<b>성별</b>	남성	498	19%	21%	23%	19%	18%
여성		508	17%	19%	21%	19%	23%	
<b>주요 지지 정당별</b>	새누리당	395	11%	10%	19%	24%	34%	
	민주당	210	21%	29%	25%	18%	8%	
	지지정당없음	375	24%	24%	22%	15%	15%	
<b>직업별</b>	농/임/어업	45	-	-	-	-	-	
	자영업	146	4%	22%	25%	34%	15%	
	블루칼라	140	9%	19%	29%	25%	18%	
	화이트칼라	267	18%	37%	29%	14%	2%	
	가정주부	228	3%	15%	24%	20%	38%	
	학생	90	96%	4%	0%	0%	0%	
	무직/기타	89	23%	6%	9%	12%	49%	
	<b>주관적 생활수준</b>	상/중상	102	26%	15%	32%	19%	8%
		중	373	21%	21%	21%	17%	19%
중하		321	19%	24%	25%	19%	13%	
하		194	8%	13%	14%	23%	42%	
응답거절		17	-	-	-	-	-	

\* 50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박무익 회장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법인 형태 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기이름이 이름을 알고 있는 조사회사입니다.



한국갤럽은 2012년부터 조사의 중립성, 지속성,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든 누구나, 무료로, 매주 월요일,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http://www.gallup.co.kr) 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중립성: 정치권, 이해 관계자, 특정 언론의 의뢰가 아닌, 한국갤럽이 자체 기획, 운영, 공개합니다.
- 지속성: 특정 이벤트, 특정 시기, 단 하루의 조사 표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주 5일 추적 조사합니다.
- 대표성: 전국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무선 RDD 표본 프레임을 이용합니다.



무작위로 생성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한국갤럽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매일 300명, 매주 1,200명 이상 유효표본을 확보합니다.

매일 수집한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사후 가중처리합니다.

- 하루 데이터는 전국 8천여,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림(Rim) 가중
- 일일(Daily) 지표는 당일과 직전 이틀 데이터를 3일 이동 평균(3-day-rolling average)
- 주간(weekly) 지표는 월~금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8천여, 성/연령대 특성 비율로 셀(cell) 가중



한국갤럽 조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문의: 한국갤럽 02-3702-2100(대포)/2571/262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